



정보산업의 신지식인 양성의 첨단 교육연장 부산 동명정보대학교를 찾아서

서울에서 4시간30분, 부산역에 내리자 습한 기온과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찌른다.

삼삼오오 짝을 지어 어디론가 떠나려는 듯 배낭을 메고 여행복차림을 한 사람들의 웅성거림, 인파속을 헤치며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니 우리나라 제일의 항구도시 부산의 활기가 느껴진다.

부산역에서 차를 타고 약 30분정도 가다보면, 12년전 구 동명목재 그룹의 창시자였던 (고)강석진 회장이 「교육부곡」의 꿈을 실현코자 설립했다는 동명문화학원재단의 동명정보대학교가 있다.

푹푹한 나뭇잎 향기를 맡으며 교정을 올라가다 보니 본관위 동명정보대학교라는 교명옆에 슈퍼컴퓨터를 자랑하는 글귀가 눈에 들어온다.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학교 건물들, 그 건물들 사이로 하나 둘씩, 혹은 무리를 지어 다니는 학생들을 보니 젊음의 신선함과 생동감이 느껴진다.

부산 남구 용당동의 용마산 자락에 자리잡고 있는 동명정보대는 뒤로는 산과 숲의 포근함이, 앞으로는 탁 트인 부산만의 넉넉함이, 그리고 부산항을 오가는 수많은 선박들의 장면은 학생들이 미래의 꿈을 키

우며 면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이상적인 입지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여진다.

21세기를 눈앞에 둔 현대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정보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경영스타일을 고려한 정보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학교는 폭넓은 지식과 발상의 전환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최적의 교육환경구축이 요구된다.

동명정보대는 이러한 다변화적 사회에 맞는 교육 시스템을 갖춘 대학이다.

정보통신 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교육프로그램을 보면 전문적인 특성화된 대학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고객만족경영이라는 기업경영의 원리를 도입해 교육의 품질과 교육수요자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동명정보대는 2000년대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정보통신분야의 인재양성이라는 사명 의식을 갖고 1996년도에 “지역(경제)특성화 대학”, “학습자 중심의 열린 대학”, “21세기 지식정보화 거점대학”을 지향하며 세계적인 대학으로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

21세기 정보특성화 모델형 대학 - 동명정보대학교.

고도 정보사회를 앞두고 현실과 유리되지 않는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신념하에, 이 대학은 정보공학부, 정보경영사회학부, 정보조형학부, 건축학부 등 대학교육프로그램 전체가 첨단 컴퓨터를 다루는 학문으로 구성되어 '특성화된 대학' '개혁 모델형 대학'으로 키워나가고 있다.

'96년 3월, 840명의 신입생을 모집해 처음 문을 연 동명정보대학교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개교 첫해부터 3회째 연속 '교육개혁 우수대학'에 선정됐으며, '98년 2월에는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가상대학 프로그램 시범운영 대학」으로 선정됐다. 이 기록은 대학특성화에 대한 교육개혁의 모델대학이 되고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나 잘 입증해 주고있다.

이 대학의 자랑거리중 또 한가지는 국내 대학중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고 있는 슈퍼컴퓨터이다. '97년 6월부터 본격 가동한 슈퍼컴퓨터는 미국 IBM사에서 만든 다목적 다중병행처리시스템인 「RS6000SP2」로 초당 135억번의 계산이 가능하다고 한다.

동시 다발적으로 대용량의 자료 전송이 가능한 이 슈퍼컴퓨터는 정체현상없이 초고속으로 각종 정보를 검색할 수 있어 학생들로부터도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학교외에 연구소, 산업체 및 정부기관 등의 450여 사용자들에게도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슈퍼컴퓨터를 바탕으로 전자도서관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확대보급 및 보편화 단계에서는 선진외국의 슈퍼컴퓨터센터와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세계적인 슈퍼컴퓨팅 센터들과

연계하여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메타 컴퓨팅 환경을 구현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동명정보대학교는 4500만 비트를 전송할 수 있는 T3급의 초고속 정보통신망으로 부산 경남지역의 스위칭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 국내 대학중 가장 빠른 인터넷 접속속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동명정보대는 현재 지역사회 봉사를 위하여 노동부 직업능력향상 시범교육훈련의 일환으로 실직자를 대상으로 1년 과정의 네트워크 전문가, 게임 프로듀서,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MCSE(Microsoft Certified System Engineer)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금년 12월 1일부터는 정보통신부의 「정보대국 사업」인 Star Project에 부산 경남지역 대학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콘텐츠 Provider로 선정되어 두루넷의 Cable망을 통해 부산광역시 남구와 수영구에 교육컨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1996년 3월 국내 최초의 첨단정보화분야의 종합 대학으로 문을 연 동명정보대학교는 개교 초기부터 정보의 멀티미디어화 경향을 적극 수용하여 정보인프라스트럭처의 대용량화, 초고속화, 디지털화를 추진하여 왔다.

국내 최고 수준의 멀티미디어 스튜디오는 멀티미





디어의 제작과 위성방송의 송출이 가능하여 21세기 지식 정보 사회에서의 고부가가치의 원천인 콘텐츠의 제작과 최상의 서비스를 하게 된다.

이렇게 동명정보대학교는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할뿐만 아니라,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노동부, 그리고 교육부와도 연계하여 정부정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밝아오는 동명정보대학교의 미래

「사람은 천부적으로 창조적 기능의 책임을 부여받았다. 이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기술을 갖춘 바탕위에 근면, 성실하여야 한다. 내일의 조국 번영과 인류복지 증진에 공헌 봉사하여 천부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유능한 후진을 기르기 위하여 여기 동명정보대학교를 설립한다」 이것이 동명정보대학교의 건학이념이다.

건학이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동명정보대는 지금까지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을 위하여 지식정보화, 지방특성화, 열린 대학교육의 실현 등 3개 부문에서 대학교육의 개혁 및 특성화를 통해 2000년대 부산, 경남지역의 지식정보화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보화특성화 대학으로 탄생한 동명정보대

학교는 학과간의 공유성을 넓히고 학문간의 통합성을 추구하는 학부제 운영, 부전공제 도입에 의한 전공 학문의 지평의 확대, 교양학부(기초과학부)와 전공학부의 유기적 연계와 같은 학제성(學際性), 산학연 협동체제와 인턴십을 통한 이론과 실무의 연계, 프로젝트 중심의 실험 실습 실기 교육으로 통합적 안목과 문제 해결 능력 배양, 급변하는 테크놀로지에 대응하는 IBS교육시설 제공과 같은 실제성(實際性) 그리고 Native Speaker에 의한 산 외국어 교육, 해외 연수 프로그램의 도입에 의한 유학기회의 제공과 같은 국제성(國際性) 등의 3대 교육 이념 아래 기존 대학의 틀을 벗어나 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한 교육혁신으로 정보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풍부한 인간성과 창조적 능력을 겸비한 실무형 전문기술인을 육성하는 “지적 서비스업으로서의 21세기형 인재양성 대학”으로 힘차게 발돋움 할 것이라고 학교 관계자는 말한다.

정보기술원 - “실직자 재취업 · 벤처기업인 양성, 우리가 앞장선다.”

동명정보대학교는 실직자 재교육을 위한 독특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98년 5월에 개원한 대학

부설「정보기술원」의 '정보화 재취업 프로그램' 이 바로 그것이다. 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향상 교육훈련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정보기술원은 실직자 재교육을 통해서 IT(Information Technology)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정보기술원의 김윤경 팀장은 "현재 IT분야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정을 이수한 교육생은 높은 취업율을 보이고 있다."고 말한다. 정보기술원에서는 노동부가지원하는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의해, 국내 처음으로 3D Game Graphic Artist, 3D Programmer에 관한 2개 교육과정을 개설하였으며, 또한 Network Programmer, Web Developer, Database

Developer에 관한 3개 과정을 개설하였다. 입학생들은 매일 8시간의 수업을 해야하며, 기간은 8개월과 12개월 과정이 있다.

'99년 상반기 제1기 수료생 중 대다수가 IT업체에 이미 취업하였고, 그의 창업을 희망하는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정보기술원에서는 창업 아이템을 심사한 후 실질적인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리눅스를 기반으로 인터넷 구축 및 소프트웨어 개발자문의 창업아이템으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선정된 본과정 출신의 (주)프로·리눅스는 현재 본 대학 창업지원센터에 이미 입주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 박현태 총장에게 듣는다

“현장·실무능력 겸비한 인재 배출”

“이제는 대학도 현장성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배출하는 창구가 되어야 합니다” 동명정보대 박현태총장은 대학이 사회와 유리되어서는 안되며 산업계의 요구에 부합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지론을 폈다. 그래서 그는 「지

식수요자와 학습자중심의 교육」을 펼치는 것이 총장으로 내세우는 교육방향임을 강조했다. 박총장은 이러한 교육의 방향은 시장경쟁원리에 입각한 발상이라고 말한다. 그는 “대학도 제대로 경영이 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면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배출해야만 그 대학이 존립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래서 동명정보대는 외형에 집착하지 않고 지식·정보산업분야를 특화해 21세기에 가장 필요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교육목표를 세우고 있다.

박총장은 “IMF사태로 빚어진 우리민족의 시련은 결코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다”면서 “선진국에 대응할 만한 기술력을 갖추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이며 따라서 교육부문의 경쟁력을 갖춰야만 두 번 다시 이같은 시련을 맞지않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계가 보수적인 풍토 때문에 개혁이 어느 분야보다 늦은 점을 눈여겨보고 있다.

박총장은 “동명정보대는 역사는 불과 4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장래성은 어느 대학에 뒤지지 않는다”면서 “이것이 기존의 대학에 비해 개혁적인 프로그램과 교과과정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